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 pp. 295-305,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95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이명인[1], 서혜영[2], 황순정[3*]
[1]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2]원광대학교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교수
[3]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The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Myung-In Lee[1], Hye-Young Seo[2], Soon-Jung Hwang[3*]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Professor, Big Data and Financial Statistics, Wonkwang University
[3]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College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정서조절 곤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으로 분노표현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대학생,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ger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then confirms the influence on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s a mediating effect. And, i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ollege students who complain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hat can solve their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anger ex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showed somewhat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 regulation difficul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motion control difficulties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anger ex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we could see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reduce the difficulty of emotion control and lead to positive anger ex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College student, Interpersonal Problems, Anger 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Medic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on-Jung Hwang(hoang12@naver.com)
Received December 1, 2020 Revised December 15,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1. 서론

1.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분노조절장애 진료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720명, 2016년 1,995명, 2017년 2,161명, 2018년 2,242명, 2019년에는 2,24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 이는 치료적 수준의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통계일 뿐 분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져서 내적으로는 성격장애, 우울증 등의 장애[2]와 외적으로는 타인에게까지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일으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는 문제[3]까지 포함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마도 훨씬 더 많은 20대에게서 분노표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0대 대부분의 시기를 보내는 대학생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고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4].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분노표현 방식을 더욱 공격적이고 부적절하게 표현하게 하며 다양한 발달과업을 완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전체의 삶에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과 진로 결정의 문제,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5]. 이러한 분노의 표현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6] 분노표현에 따라 대인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7].

적당한 분노의 표현은 잘못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관계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지만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6].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8]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움으로써 성숙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로 그 어떤 발달단계보다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하다[9].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10]. 전체 대학생들의 21.5%가 대인관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11],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또한 발달과업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조절 곤란은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적절한 행동을 조정하고 목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12] 정서의 지각과 표현을 통한 정서조절은 상호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13],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 또는 화냄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분노인 경우는 정서조절을 더욱 곤란하게 하여 대인관계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또한 경험하는 분노 정도를 개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4].

이에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긍정적 소통을 위한 표현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정서 조절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적 자기중심적 성향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15], 부모와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이 커져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6],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또한,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 분노표현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낮아지며[18] 특성분노와 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9].

하지만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효과로 확인한 연구는 안재희와 이아라[14]의 연구 외에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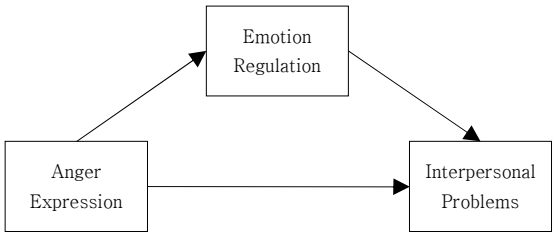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학생들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학생들의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및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 I시 지역 소재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재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문항 중 체크 하지 않았거나 문항에 연속적으로 같은 번호를 체크한)설문지와 연령이 30세 이상인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53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중간 정도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를 적용한 경우 최소 표본 크기는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20%로 고려하고,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재학생들이 특정 학과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W대학의 모든 학과의 재학생 수와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550명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I시 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원이 학과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설문조사가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무기명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대상자의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설문지 작성 전에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53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연구 도구

2.4.1 분노표현

본 연구의 분노표현 유형은 Spielberger 등[20]의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를 전겸구 등[21]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분노척도(STAXI-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개 영역으로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각 하위영역은 8문항씩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척도로서 1점인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인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며, 이는 각 하위영역에서 8점에서 32점으로 측정되어지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통제 .79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전체 .76, 분노표현 하위요인 분노표출 .75, 분노억제 .79, 분노통제는 .80이었다.

2.4.2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의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Ureno, Villasenor[22]이 개발하여 김영환 등[23]이 번안한 것을 홍상황 등[24]이 수정·보완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KIIP-SC)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위요인 8가지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이다.

8개 하위요인은 각 5문항씩으로 5점 Likert척도로 총

40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환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각 .61~.81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척도 Cronbach's α는 .96으로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는 .76~.87이었다.

2.4.3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12]가 개발하고 조용래[25]가 번안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충동통제곤란 5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7문항, 정성에 대한 비수용 7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5문항, 목표지향행동수행의 어려움 3문항, 하위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용래[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3단계 접근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학생 188명(35.1%), 여학생 347명(64.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222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학년이 198명(37.0%), 3학년 115명(21.5%)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 164명(30.7%), 종교가 없는 경우 371명(69.3%)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 284명(53.1%), '만족한다' 176명(32.9%), '불만족한다' 39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 405명(75.7%), '하' 105명(19.6%), '상' 25명(4.7%)이었다. 정신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210명(39.3%), '보통이다' 186명(34.8%), '매우 건강한 편이다' 90명(16.8%), '건강하지 않다' 45명(8.4%), '매우 건강하지 않다' 4명(0.7%)순이었다.

담배를 '피운적이 있다' 382명(71.4%),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111명(20.7%),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끊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5)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188(35.1)
	Female	347(64.9)
Grades	1st	198(37.0)
	2nd	222(41.5)
	3rd	115(21.5)
Religion	Yes	164(30.7)
	No	371(69.3)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32(6.0)
	Satisfaction	176(32.9)
	Moderate	284(53.1)
	Dissatisfaction	39(7.3)
	Great dissatisfaction	4(0.7)
Economic degree	Good	25(4.7)
	Average	405(75.7)
	Poor	105(19.6)
Mental health state	Very healthy	90(16.8)
	Healthy	210(39.3)
	Moderate	186(34.8)
	Unhealthy	45(8.4)
	Very unhealthy	4(0.7)
Smoking behavior	Never smoked	382(71.4)
	Former smoker	42(7.9)
	Current smoker	111(20.7)
Alcohol consumption	I haven't drunk at all in the last yea	32(6.0)
	Less than once a month	118(22.1)
	Monthly one time	94(17.6)
	Monthly 2~4	207(38.7)
	Weekly 2~3	80(15.0)
	Weekly above 4 times	4(0.7)
Caffeine	I haven't drunk at all in the last yea	15(2.8)
	Less than once a month	36(6.7)
	Monthly one time	115(21.5)
	Monthly 2~4	166(31.0)
	Weekly 2~3	47(8.8)
	Weekly above 4 times	156(29.2)

었다' 42명(7.9%)이었다. 알코올의 경우 '한달에 2~4번' 207명(38.7%), '한달에 1번 미만' 118명(22.1%), '한달에 1번 정도' 94명(17.6%)이었으며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32명(6.0%)순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한달에 2-4번' 166명(31.0%), '일주일에 4번 이상' 156명(29.2%), '한달에 1번 정도' 115명(21.5%),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5명(2.8%)순 이었다. Table 1 참고.

3.2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과의 관계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r=.43, p<.01)를 보였고, 정서조절곤란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r=.24, p<.01)을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r=.57, p<.01)을 보였다.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의 경우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하위요인을 제외한 하위변인들은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분노표현(r=-.14, p<.01)과 대인관계문제(r=.18, p<.01)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분노표현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r=.30, p<.01)이었고,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r=.57, p<.01)이었다. Table 2 참고.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535)

	1	2	3	3-1	3-2	3-3	3-4	3-5	3-6	3-7
1	1									
2	.43**	1								
3	.24**	.57**	1							
3-1	.29*	.50**	.86**	1						
3-2	-.14**	.18**	.43**	.16**	1					
3-3	.23**	.44**	.81**	.70**	.14**	1				
3-4	.26**	.57**	.65**	.57**	.24**	.49**	1			
3-5	.30**	.50**	.85**	.77**	.11**	.71**	.50**	1		
3-6	.29**	.37**	.59**	.55**	-.12**	.41**	.27**	.58**	1	
3-7	.13**	.40**	.81**	.64**	.32**	.57**	.39**	.67**	.53**	1

1. Anger Expression 2. Interpersonal Problems 3. Emotion Regulation 3-1.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3-2.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3-3. Nonacceptance to Emotion 3-4. Lack of Emotional Clarity 3-5.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6.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 p<.05, ** p<.01

3.3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과의 매개효과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3단계 접근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노표현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유의성을 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분노표현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유의성을 보았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분노표현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단계에서는 분노표현과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일차 확인하여 공차한계 0.1이상, 분산팽창지수(VIF) 10이하로 나타나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β=.4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분노표현이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β=.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분노표현과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β=.31, β=.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 p<.001)보다 3단계(β=.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설명력도 1단계 18.1%에서 3단계 41.2%로 확인되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Fig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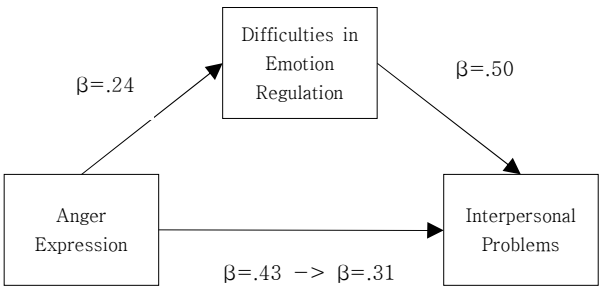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45	.24	5.70***	.056	32.51***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4	.31	9.02***	.412	188.10***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55	.50	14.51***		

*** p<.001

Table 4.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mediation effect (N=535)

Variables			sobel test(Z)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95% ULCI	95% LLCI
Anger Expressi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nterpersonal Problems	5.31	1.34	1.03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Nonacceptance to Emo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79	.29	6.87***	.080	47.24***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4	.31	8.43***	.332	133.48***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30	.41	11.01***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36	−.14	−3.35**	.019	11.23**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96	.46	12.16***	.241	85.95***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21	.25	6.59***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Nonacceptance to Emotion	.60	.23	5.36***	.049	28.70***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71	.35	9.32***	.306	118.79***
	Nonacceptance to Emotion			.29	.37	9.86***		

** p<.01, *** p<.001

또한,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5.31)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값이 각각 1.34과 1.03으로 나타나 0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참고.

3.4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과의 하위변인별 매개효과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변인들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각각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총 6번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5 참고.

첫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표현이 충동통제곤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29,

p<.001), 분노표현과 충동통제 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1, β=.41,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8)보다 3단계(β=.3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충동통제곤란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충동통제곤란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5.83)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충동통제곤란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값이 각각 1.28와 .98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14, p<.01), 분노표현과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46, β=.25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2.99)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값이 각각 1.36와 1.06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분노표현이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23, p<.001), 분노표현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5, β=.37,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4.71)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9와 1.00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한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Lack of Emotional Clar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Lack of Emotional Clarity	.73	.26	6.32***	.070	39.95***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2	.30	8.60***	.403	181.34***
	Lack of Emotional Clarity			.36	.49	14.12***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83	.30	7.26***	.088	52.70***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3	.30	8.21***	.333	134.26***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1	.41	11.06***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97	.29	6.98***	.082	48.77***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72	.35	8.90***	.246	88.06***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06	.27	6.85***		

*** p<.001

Table 7.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subfactors of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ion effect (N=535)

Variables			sobel test(Z)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95% ULCI	95% LLCI
Anger Expression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Interpersonal Problems	5.83	1.28	.98
Anger Expression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Interpersonal Problems	2.99	1.36	1.06
Anger Expression	Nonacceptance to Emotion	Interpersonal Problems	4.71	1.29	1.00
Anger Expression	Lack of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Problems	5.77	1.39	1.07
Anger Expression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terpersonal Problems	6.07	1.29	.99
Anger Expression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Interpersonal Problems	4.89	1.22	.93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6 참고.

네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적 명료성 부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26, p<.001), 분노표현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0, β=.49,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명료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5.77)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적 명료성 부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39와 1.07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적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을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β=.30, p<.001), 분노표현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0, β=.41,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β=.43)보다 3단계(β=.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6.07)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은 부분매개효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9와 .99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섯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표현이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29, p<.001), 분노표현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5, β=.27,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4.89)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2와 .93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7. 참조.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및 그 하위 변인들의 매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표현은 정서조절곤란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을 제어하고 통제하며 지나친 간섭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고[14, 17, 18], 동시에 정서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2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의 경우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하위요인을 제외한 하위변인들은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분노표현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이었고,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이었다. 이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줄이거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정서조절양식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이중 특히 적극적으로 정서조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능동적 방법은 정서조절, 대인관계, 적응 등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은 오히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분노표현 빈도를 더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28].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부분매개하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하위변인인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조절을 위하여 경험하는 스스로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노조절은 적응의 형태를 보이는 분노표현이지만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부적응적 형태의 분노표현이다[29]. 우리나라 문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 유년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여 감추는 것이 더 익숙하다[30].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으므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험을 쌓고 스스로 학습할 기회가 적어 대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우 관계 형성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면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겪게 된다. 정서조절 곤란은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적절한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에 따른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므로[12] 정서의 지각과 표현을 통한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에 있어 대인관계에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13], 부정적인 표현의 분노인 경우 정서조절을 더욱 힘들어져 상호간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또한 안재희와 이아라[14]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를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시기 정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명확하게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적용하게 된다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31].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서조절은 상호 관련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을 확인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유형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조절곤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을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현유형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었고,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은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부분매개하고,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하위변인인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

여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적 명료성이 부족한 경우 특히, 대인관계형성이 어렵게 되어 분노표현 빈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 성인인 대학생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분노표현유형을 갖고 정서 조절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서조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서조절 교육기회 제공은 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학과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W대학의 모든 학과의 재학생 수와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고려된 연구였으나 보건대학의 특성상 4학년을 포함 할 경우 특정학과 편중으로 4학년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연구였고, 3학년 참여율이 가장 적었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학과별 학년별로 비율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이므로 동일한 분야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언한다. 두 번째, 스스로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W. B. Park.(2020). Over 30% increase in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Whosaeng(Online). http://www.whosaeng.com/121153

[2] A.-M. Robyn. (1994). Anger management using cognitive group therapy.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0(3)*, 17-20.

[3] G. H. Shin, & M. H. Kang. (2015). Anger expression Typ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Q Methodolog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1*, 137-163.

[4] S. Y. Roh. (2020).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Thinking between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8(1)*, 95-103. DOI : 10.34284/KJGD.2020.02.28.1.95

[5]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ss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3)*, 438.

[6] I. J. Choi & H. S. Sim. (2010). The Influence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rseling and Psychotherapy, 22(2)*, 479-492.

[7] S. J. Noh. (2008). The Influence of Anger Expression Typ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Athle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Daejeon.

[8]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9]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0] J. Y. Lee.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in the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11] Statistics Korea(2020). National youth counseling content by year.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0

[12]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t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13] J. J. Chang. (2015). The Effects of the Positive Emotion Enhancement Training 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3)*, 421~443.

[14] J. H. Ahn & A. R.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and Trait Ange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47-69. DOI : 10.21509/kjys.2016.06.23.6.47

[15] Y. J. Jo & D. H. Lee. (2013).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s in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4)*, 845-866.

[16] S. H. Park. & N. O. Lee. (2014).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Focus on Mediating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4(1)*, 1-18.

[17] S. E. Lee. (2014). The Effects of Trait-Anger and Anger Rumin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fy, Korea.

[18] J. Y. Kan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Life Stress, Anger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19] M. R. Jeong. (2005). The Effects of anger and rumination abou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terpersonal problem in Undergradu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0]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Chesney M. A., & Rosenman R.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pp 5-30). New York: Hemisphere

[21] K. K. Chon & K. H. Kim. (1997). Effects of Anger, Hostility, and Stress on Physic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 79-95.

[22]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23] Y. H. Kim, Y. K. Jin, Y. R. Cho, J. H. Kwon, S. H. Hong & E. Y. Park. (2002). Validation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C and KIIP-P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391-411.

[24] S. H. Hong, E. Y. Park, Y. H. Kim, J. H. Kwon, Y. R. Cho & Y. K. Kim.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25] Y. R. Cho. (2007). Assessing Emotion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DOI: 10.15842/kjcp.2007.26.4.012

[2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27] D. B. Woo. (2013). Negative mood regulation mediates the impact of emotional awar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high to moderate empathy : Results of a moderated mediation approach and gender dif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8] H. J. Won. (2014). The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ediation Effect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9] T. S. Kim. (2008).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ger and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ger-Inducing Events and Anger-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30] J. Y. Le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in the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31] S. H. Park, Y. K. Loh, E. H. Cho & D. G. Lee. (2011).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Problems and Happiness by the Subgroups of Anger Expression Style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3)*, 77-92

이 명 인(Lee, Myung In) [정회원]

· 2014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milee@wu.ac.kr

서 혜 영(Seo, Hye-Young) [정회원]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응용수학(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빅데이터 금융통계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분석, 금융통계, 확률론 등
· E-Mail : seofaith@hanmail.net

황 순 정(Hwangn, Soon-Jung) [정회원]

· 2015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 교육, 노인 질환
· E-Mail : hoang12@naver.com